

안경환의 '법과 문화'



국민에게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사상, 이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말이다.”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던 말이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말 한마디로 결판나던 시절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라는 문구가 없다. 실로 이례적인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존중하느나 남과 공동으로 또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의 양심을 담은 보편적 경전인 ‘세계인권선언’의 구절이다. (제18조). 이 선언이 동일한 조문에 담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세 가지를 합쳐 ‘내심의 자유’로 부른다. 세 자유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이 동일하다.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지키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은 사상이나 종교 또

는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사적 소신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헌법의 전범(典範)이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다른 구조를 취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조 2항)’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어휘가 이 산하에 불러들인 피의 냄새 때문일 것이다. 1950, 60년대 지식청년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던 잡지 ‘사상계’가 당국의 극심한 탄압 끝에 폐간에 이르게 된 것도 잡지의 체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상대성을 신봉한다. 바로 이 점이 북쪽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보다 우수한 체제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신조를 관용하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

주의 핵심가치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사상의 공개시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불량상품은 시장에서 배척 받듯이 열등한 사상도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마련이다. 성숙한 시민은 원하지 않는 사상, 바람직하지 않는 정치신조를 외면하기 마련이다.

사상, 양심, 종교적 신념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언론의 자유’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아무리 황당한 주장이라도 물리적 박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민주국가다. 종교적 신조를 이유로 타인을 성가시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극렬·이단·광신 집단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법적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 게 바로 민주사회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정평이 나왔다. 사상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법은 국가의 안보보다도 정치적 소수자나 건전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된 것은 천하가 아는 일이다. 해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는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온다.

그렇다고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이 법이 아니라도 형법을 보완,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는 신조나 언론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근년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를 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의 혐의를 부당한 것도, 그가 소속된 정당의 해산 정구를 제소한 까닭도 자유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머지않아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따를 것이다. 국민은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을 주목한다. 국제사회도 주목한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 세계인처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인지.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칼럼



김성덕 회교교회 담임목사

어느 날 미용실에 들렀다가 손님으로와 계산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북 남원 산골마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동생도 아프고 자신도 아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곡식을 먼 길 읍내로 나가 팔아서 약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남동생에게만 먹이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남동생만 편애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미워졌다고 합니다.

스무살이 넘었을 때, 본인은 시집을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는 반강제적으로 서울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 시집을 가게 된 본인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어머니를 원망했고,

덕분에와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이 미워서 그 멀리 일찍 집을 보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욱 미워졌고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해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동생에게만 약을 먹인 것은, 남동생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이었고, 자신은 약을 안 먹어도 살 병이기에 약을 먹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멀리 서울로 시집을 보낸 것은 기회가 되었을 때, 산골에서 자란 자신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배려가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 매년 그대왔듯이 절을 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지던 막상 어머니의 그림자도 볼 수 없어서 여전한 마음어 아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감사하고 효도 잘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

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자라왔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인 마쓰타 고 노스케는 술한 역경을 극복하고 아흔 넷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는 산하기업 570개, 종업원 13만명의 대기업 총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마쓰시타 전기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부도난 집에 가난하게 자라서 대기업의 수장까지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허약한 것. 셋째, 못 배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비결을 한 마디로 ‘덕분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고,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선생으로 여기고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기술을 익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난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무식하여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라고 생각하니 희망과 절망이 나오고, ‘덕분에’ 라고 생각하니 감사와 희망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에서 이웃 간에 주차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남성이 이웃집 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 간에 내 집 앞에 세워 놓은 당산 차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다투면 다투면 다투니 나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서로 간에 당신들 덕분에 든든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살면 더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었고, 바쁜 농사철이 되면 서로 힘을 나누고 협력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은 함께 나누었고, 기뻐하면 서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정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덕분에’ 사는 겁니다. 이제에는 ‘덕분에’ 라는 말을 더욱 많이 사용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더 불어서 화목한 사회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고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

‘고려인’이라는 말이 이제 광주에서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 광산구 월곡동 신가동 일대에 3000여명이 ‘고려인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졌다. 특히 올해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라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특집 보도를 한 덕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근현대사 비극의 유산이라는 사실과 독립운동의 후손이지만 우리말을 잘 못 해 숙적이고 살고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되고 고국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제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새 브랜드 고려인마을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3~5년마다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해 또다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게하는 방문취업비자(H2)가 아니라 재비·재일동포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원하면 정착할 수 있는 해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일은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조만간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당장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러시아,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주변부로 밀리고 밀려 절망 속에 살다 고국에 정착하는 새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우리 말이 서투러 하소연할 곳이 없다. 다행히 광주에 고려인의 대모역할을 하는 신조야씨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천영목사에 의지하여 광주에 정착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방 한칸이라도 얻을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하고, 막노동이나 일지리를 알선받을 곳이 필요하고, 일 나가면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도 필요하다. 하루빨리 우리말을 배워 ‘한국인’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 한국어를 배울 교실도 필요하다. 어

려운 처지지만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고 협동조합을 꾸렸는데 여기에도 공간과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임시로 봐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한 달에 집세와 유지비로 나가게 있는 해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는 500여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역 여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광주시지역본부와 함께 임대건물 매입 비용 2억원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필자는 후원회장으로서 나름 모금을 위해 뛰고 있다. 현재 8000만원 정도를 모았는데 정채상태다. 나머지 1억2000만~2억원은 수도권의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에는 큰 돈 일수도 있고 작은 돈 일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적시해가며 후원을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 정도 액수를 광주에서 자체 해결 못하느냐?”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면 이런 데는 관심없느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고려인 지원조례까지 만들었다면서 시당국은 뭐하고 있느냐?”

광주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해를 구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뒤통수가 뜨거웠던 경험이 여러 번이다. 어떤 분은 모금서비스를 하려고 제안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지역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표를 감내하는 것이라서 포기했다.

고려인마을은 광주의 새 브랜드가 되고 있다. 다문화대안학교인 새날학교와 함께 고려인마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고, 이것은 광주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민주인권도시라는 이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80년 민주화운동을 이끈 민주도시 광주가 이제 다문화와 고려인동포들을 품어안은 인권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이 새날학교와 고려인마을을 찾고있다. 교사, 학생, 공무원,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정착모형을 보고자 견학을 오고있다. 지금까지 많은 광주시민들의 성원속에 여기까지 왔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광주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고려인마을지원센터도 대기업의 한 번의 후원보다 광주시민들이 십시일반하여 마련한다면 이 또한 우리 광주시민이 이런 위대한 업적으로 길이 남지 않겠는가!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호소한다.

후원방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광주고려인마을’을 지정하여 기부하면 된다. 안내전화는 062-383-9061

社說

광주 신축 공공건물 ‘부실’ 철저히 조사하라

완공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광주지역 상당수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누수와 지반침하,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수백억 원대 예산을 투입한 일부 건물에선 해마다 흙이 발견되면서 부실공사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340억 원을 들여 지은 CGI센터는 2012년 3월 개관과 동시에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 건물에선 지난해에도 가스 누설 및 누수가, 올해는 벽체 균열 등이 발견됐다. 북구 다목적체육관에서 2년 전 마루바닥 들뜸과 관중석 의자 흔들거림에 이어 올해는 누수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완공한 장애인재활전문병원(사업비 300억 원)은 문을 열자마자 도색이 벗겨지고, 배수로 불량에 이어 조경목 고사 등이 발견됐다. 2012년 준공된 고령친화종합체육관(사업비 179억 원)은 첫해 건물 누수, 지난해 바닥재 파손, 올해는 전기실 벽 누수, 벽

균열 등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광주시 관내 공공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해 보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곳은 58곳에 달한다. 업계에선 공식적인 조치 외에 현장에서 긴급 하자보수가 이뤄진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하자에 대해 ‘뺄질식’ 보수만 이뤄지고 항구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리다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면 시면의 형체를 투입해 보수해야 할 판이다. 부실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시장이 직접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남은 공공시설물을 재점검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당대에 관리·감독을 맡은 행정당국이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준공된 고령친화종합체육관(사업비 179억 원)은 첫해 건물 누수, 지난해 바닥재 파손, 올해는 전기실 벽 누수, 벽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특혜 시비 따져야

광주시가 롯데쇼핑(주)과 맺은 불공정 협약에 대해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롯데월드컵점으 매출이 급증해도 시가 협약한 상한액에 걸려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데다 주차장도 협관에 임대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서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천600여㎡를 오는 2027년까지 6만5천여㎡ 규모로 소량몰을 지은 롯데쇼핑 측이 사실상 내부시설 임대대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최근에는 연매출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위해 직영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연매출이 3000억 원을 넘을 경우 재협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에 대한 특혜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시는 내장객 증가에 따라 지난 2011년 1차 협약 당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934면을 10억 원, 지난해 2차 협약에서는 1691면에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사용 허가했다. 이 금액은 2011년에 1면 당 26만7000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2만6700원에 불과했다. 특히 1차 협약에선 주차장 사용기간이 4년이었지만 2차 때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

그렇지 않아도 롯데쇼핑 등은 지역 제품 구매에 인센티브도 매장 입구에 불법으로 ‘라이프’까지 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롯데쇼핑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으로서 상도의를 지켜야 한다. 팍수를 부릴 게 아니라 연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해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주차장 사용료도 적정선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광주시는 더 이상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임대료와 사용료를 정확히 산출해 재협약에 나서야 한다. 아니라면 광주시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無等鼓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라사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라사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라사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중략)/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라사와 횡단나귀’)

겨울날, 특히 눈 내리는 날이면 떠오르는 시다. 어릴 땐 ‘나타사’가 누굴까 궁금했다. 나이 들어선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는 배경이 부럽다.

백석(1912~1996년)은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그 중 안도현 시인이 으뜸이다. 안 시인의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은 백석의 ‘흰 바람백이’와 ‘중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에서 따왔다. 안 시인은 지난 7월 ‘백석 평전’도 펴냈다.

시도 시이지만, ‘문단의 미남’으로 꼽혔던 그는 술한 연애사를 남겼다. ‘나타사’로 지목되는 통영 출신 박경린은 훗날 절친한 친구의 아내가 됐다. 또 다른 ‘나

타사’ 기생 자야와의 연애도 애뜻하다.

한국 3대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자야는 평생 백석과의 사랑을 잊지 못했다. 백석문학상도 제정한 그녀는 법정스님에게 1000억 원을 시주했고, 사찰 ‘길상사’가 만들어졌다. 시주 당시 내놓은 돈에 대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최근 백석의 유일한 시집 ‘사슴’ 초판본이 경매에 나와 화제다. 경매 시작가만 5500만 원에 달한다. ‘노루’ 등 33편이 실

시인 백석

린 ‘사슴’은 1936년 100부 한정판으로 출간된 희귀본이다. 김기림은 “백석은 한 권의 시집을 실로 한 개의 포탄을 던지는 것처럼 새해 첫머리에 시단에 내던졌다”고 했다.

유명 작가의 초판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해리波特와 마법사의 물’ 초판본은 지난해 2억5000만 원에 팔렸다. 1997년 1월 500부 출판된 초판본의 시세는 약 3400만 원. 이 책은 작가가 쓴 설명과 삽화가 담겨 경매가가 치솟았다. 슈퍼팬이 첫 등장한 ‘엑선코믹스 1호’ 초판본은 약 32억 원에 판매됐다.

백석 시집의 낙찰가로 궁금하지만, 누구 품에 안길지 더 궁금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경 고 개 케 임 국 227-9600		독 자 서 비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6		D I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S E L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세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